

충북지역의 惠熙作 佛像 연구*

金春實**

-
1. 머리말
 2. 기존에 惠熙作으로 알려진 불상
 3. 새로 찾아진 惠熙作 불상
 - 1) 충주 혜원정사 석조보살좌상(1659년)과 佛石製 小佛像 2구
 - 2) 진천 영수사 관음전 목조보살좌상
 4. 충북지역 惠熙作 불상의 양식 특징과 조각사상 의의
 5. 맺음말
-

1. 머리말

惠熙는 17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조각승으로 그가 조각한 불상으로는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도 1), 공주 갑사 보장전의 목조여래좌상(도 3), 그리고 전주 일출암의 목조약사여래좌상과(도 4)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77년) 등이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불상들은 근래에 복장물이 함께 조사되면서 首彫刻僧이 혜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회임이 밝혀진 상들인데, 이러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그의 생애나 師承 관계, 그리고 조각양식상 특징이 밝혀지고 있다.¹⁾ 특히 그의 불상양식은 대표적인 범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면, 단독 보살상으로 규모가 크고 웅건하며 관띠나 옷자락을 옆으로 울동감있게 날리게 표현하는 등 조각솜씨가 개성적이면서도 뛰어난 조각승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혜희작의 불상이 이들 상 외에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서 혜희의 보다 구체적인 활동 상황과 같은 진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최근 충주 혜원정사 불석제 불상 3구에 대한 지정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복장기를 통해 이 상들이 혜희작 불상임이 밝혀져서 그의 불상 연구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도 5, 6, 7). 이에 충주 혜원정사의 혜희작 불상들과 腹藏記 등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충주 혜원정사의 불석제 보살상과 소불상들은 복장기를 통해서 順治 16년(1659)에 원래 범주사에서 조성되었던 상들이 밝혀져서,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상 이후 그가 지속적으로 범주사와 연관을 맺으며 조상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천의 영수사에는 복장기가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혜희작으로 보이는 목조보살상이 전하고 있어서(도 12), 이로 보면 그가 충북지역에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이 된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혜희작의 불상이 충북지역에는 범주사 원통보전 보살상밖에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혜희는 주로 충남이나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이 범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상이고 그 이후 이어진 시기에 충북지역에서 조성했던 상들이 발견되므로, 그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 鄭恩雨,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 한국 및 동양의 미술, pp. 152-175. ; 宋殷碩,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2, pp. 220-227. ; 文明大, 「조각승 혜희(慧熙)의 작품세계와 부산 금정사 봉안 용문사(龍門寺) 목 아미타불상의 복원적(三世佛像) 연구」, 『강좌 미술사』 34(한국미술사 연구소, 2010), pp. 81-106.

는 기량이 가장 원숙하고 활발히 불상을 조성했던 시기에 범주사를 중심으로 충북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북 지역에서 발견된 보살상들은 착의 형식이나 도상면에서 원통보전 보살상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어서 지역적 양식 특수성도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은 연구는 이제까지 밝혀진 혜희의 활동상, 그리고 불상양식의 전개 등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에 惠熙作으로 알려진 불상

기존에 알려져 있는 조성기에 惠熙의 이름이 들어있는 불상은 모두 7예이다. 가장 이른 연대를 보이는 송림사 성불암 목조여래좌상(1640년)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소조석가삼존상(1641년)의 경우는 法靈(法승)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불상에서 그를 도와 말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어서 초기 수련기의 상으로 보고 있다. 이때 두 상에서 惠熙의 이름이 각기 慧熙와 惠熙로 따로 나오지만 같은 조각가로 추정되고 있다.²⁾

특히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소조석가삼존상(1641년)은 임란 이후인 17세기에 승병사찰로서 새로 창건된 송광사의 주존불로서 당시 송광사의 사세를 증명하듯 조선시대의 가장 큰 소조상이다. 이 상의 조성을 지휘한 수화승은 淸憲인데, 당시 佛事가 워낙 큰 것이어서 청헌과 단일 유파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전라북도를 근거지로 활약한 法靈(法승)派와 함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이때 혜희는 법령을 따라 송광사 소조상의 불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 불상에서 혜희의 역할은 미미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혜희는 법령과에 속했던 조각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 문명대, 위 논문, pp. 82-88.

3) 송은석, 위 논문, pp. 221-227.

이 시기 부터 불상 조성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들 혜희가 首彫刻僧으로 조성한 상들은 김제 금산사 대장전 불상(1650년),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1655년), 공주 갑사 보장전의 목조여래좌상, 그리고 전주 일출암의 목조약사여래좌상과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77년) 등이다. 이들 중 금산사 대장전의 불상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順治 7년(1650)에 통정대부 惠熙 金文, 性悅, 寶融, 懷日이 조성했다고 하는 기록만 남아 있다.⁴⁾ 이들 1650년대 이후의 상들에서 비로서 혜희의 조각양식상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법주사 원통보전 불상만이 보살상이고 나머지 상들은 모두 여래상이다.

먼저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전체 높이 235cm, 무릎 폭 147cm의 대형 상이다(도 1, 2). 복장기를 통해서 이 상의 조성 시기는 順治 12년(1655)이고 畫師는 惠熙를 首畫僧으로 하여 智修, 天允, 尙敏, 海修, 天澤, 祐玄 등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통보전의 주존불로 모셔진 이 상은 마치 조선초기 수월관음도를 그대로 조각상으로 옮겨 놓은 듯, 중심에 정좌를 한 관음상을 높게 배치하고 대좌 아래 양옆에는 연꽃을 앞에 두고 관음상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와 용왕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법주사와 같은 대형사찰의 원통보전의 주존불에 합당하도록 혜희가 보살상의 거대한 규모나 구성면에서 매우 고심하여 기획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보살상의 거대한 규모와 남성성이 강한 웅장한 조각양식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인자하고 아름다운 보살상과 다르며 예배하는 이를 압도한다. 또한 크고 화려한 보관과 남성적인 얼굴, 그리고 天衣나 火佩裝飾 자락의 휘날림 등이 매우 개성적이어서 이와 비견될 수 있는 상이 없을 정도이다.⁵⁾ 법주사의 관음상은 뒤에 살펴볼 충북지역의 혜희작 보살상들에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정은우, 앞 논문, P. 159. 주 7 참조.

5) 火佩, 甲帶, 腹甲 등의 용어는 정은우 선생의 논문을 따랐다. 정은우, 앞 논문.



도 1.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높이 235cm



도 2.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측면

먼저 보관은 나무로 높은 관의 기본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화문, 모란문, 학, 화염문 장식, 그리고 정상에 化佛을 부착하여 입체적이고

화려함을 더하였다. 보관의 양옆에는 커다란 화염보주를 매달고 그곳에 관띠를 매어 장식하고 있는데, 이 관띠는 특이하게도 얼굴 양옆으로 날리고 있다. 얼굴은 방형이면서도 뺨이 팽팽하여 힘이 느껴지며 눈은 가늘게 뜨고 삼각형의 코와 꼭 다문 입에서 헤회작 불상의 단단한 표정의 相好 표현의 특징이 보인다. 목은 짧지만 어깨가 넓고 상체와 양 무릎이 우람한 팽만감을 갖고 있어 얼굴과 더불어 건장한 남성의 신체를 보여준다. 어깨에는 天衣를 걸쳐서 腕釧을 찬 양팔이 드러나 보이며 띠형태로 아래로 늘어져 몸 뒤로 둥글게 한번 힘차게 휘감겼다가 팔에 걸쳐지고 있다. 그리고 가슴의 천의 양쪽으로 화패장식을 부착하고 있는데, 그 끝단의 긴 자락 또한 관띠와 같이 특이하게 옆으로 멀리 날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이 불상의 조형에 울동감과 넓은 공간감을 부여하고 있다.

천의 속의 승각기는 수평으로 입고 있는데 윗단이 꽃잎처럼 접혀 있고 그 밑으로 화려한 장식이 있는 둥근 腹甲이 보인다. 복갑 아래로는 균의 뒤집어진 윗단 자락이 늘어져 있고 그 밑을 다시 띠로 묶고 있어 전체적으로 배부분도 공간이 비어있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된 것처럼 보인다. 균의는 결과부좌한 양 다리에 감겨지고 끝자락이 가운데서 힘있게 휘감아 늘어지고 있어 특징 있는 주름을 형성한다. 그리고 양 다리에도 화려한 장식이 있는 甲帶를 차고 있는데, 이처럼 몸 전체를 빈 공간 없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큰 상에서 자칫 비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충만된 느낌을 부여한다. 또한 이로써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절대적 존재의 특별성과 완벽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주사 관음상 외의 헤회작의 나머지 상들은 모두 여래상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상이다. 이 상들은 큰 법당의 주본불이라기 보다 작은 법당에 모셨던 상으로 보인다. 공주 감사 보장전의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50cm, 무릎너비 34cm이고, 전주 일출암의 목조약사여래좌상은 높이가 107cm, 무릎너비 72.5cm, 그리고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77년)은 높이가 107cm, 무릎너비 74cm이다.

갑사 보장전 목조여래좌상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항마촉지인 상처럼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지만 왼손은 중품하생인이며, 大衣는 오른쪽 어깨를 반단으로 가린 편단우견의 상이다(도 3). 복장기에는 조성시기가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시기는 알 수 없고, 畫員 山人으로 惠熙, 天允, 尙敏, 善雲 등이 적혀 있다. 이들 중 惠熙, 天允, 尙敏은 범주사 관음상의 화승과 겹치는 인물들이어서 주목된다. 얼굴이 둥글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어서 혜희작 불상의 독특한 상호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결가부좌한 다리 앞으로 힘차게 묘사된 옷자락은 혜희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 3. 갑사 보장전 목조여래좌상, 17세기 중엽경, 높이 50cm

전주 일출암의 목조약사여래좌상(도 4)과 부산 금정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근래의 조사에서 원래 완주 대둔산 용문사에서 삼세불의 좌우보처 여래상으로 조성되었던 상임이 밝혀졌다.⁶⁾ 복장기에 의하면 조성시기는 康熙 16년(1677)이고, 조성화원은 慧熙, 處祥, 信一, 靈坦, 普

6) 문명대, 앞 논문. pp. 88-96.

融, 懷一, 道文, 爐冶 崔秀千 등이다. 두 상의 얼굴은 감사 보장전의 상보다는 혜희작 불상의 상호 특징을 보이며, 무릎 앞 부분의 옷주름 표현도 흡사하다.



도 4.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 1677년, 높이 107.5cm

이곳에서 惠熙가 慧熙로 표현되고 있고 나머지 화원들은 범주사 관음상의 화사들과 겹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둘이 같은 인물인지 의문을 던진 의견도 있으나,⁷⁾ 이미 금산사 대장전 불상 복장기에 등장하는 寶融, 懷日 등이 겹치므로 같은 조각가로 언급되고 있다.⁸⁾ 이 점은 다음의 충주 혜원정사 불석보살상의 복장기를 검토하며 좀 더 언급해 보고자 한다.

7) 정은우, 앞 논문, pp.159-162.

8) 문명대, 앞 논문, pp.82-87.

3. 새로 찾아진 惠熙作 불상

1) 충주 혜원정사의 佛石製 보살좌상(1659년)과 佛石製 小佛像 2구

이 상들은 현재 충주 혜원정사에서 봉안하고 있으나, 2009년까지는 보은 삼년산성 내의 보은사에서 전하던 상들이다(도 5, 6, 7). 보은사는 100여년 전에 범주사에 계시던 박경하 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절이라 한다. 그런데 석조보살상에서 발견된 복장기에 범주사에서 봉안했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상들은 원래 범주사에서 봉안했던 상이나 100여년 전 보은사가 창건되면서 이곳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다시 보은사에서 같은 계통의 사찰인 충주 혜원정사로 옮겨진 것이다.



도 5. 충주 혜원정사 불석제 보살좌상, 1659년, 높이 67cm



도 6. 충주 혜원정사 불석제 소형
여래좌상, 1659년 추정, 높이 33cm



도 7. 충주 혜원정사 불석제
소형 승형상, 1659년
추정, 높이 28.2cm

석불좌상 3구는 모두 불석상들로 표면에 채색이 되어 있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가장 큰 상이 높이 67cm 정도의 보살좌상이고, 나머지 2구는 30cm 정도의 千佛像類의 소형 여래좌상과 승형상이다. 보살좌상에만 복장공이 있는데, 이곳에서 順治 16년(1659) 法住寺에서 봉안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 腹藏記와 붉은색 보자기에 싸인 후령통, 그리고 妙法蓮華經 인쇄물과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각 상의 크기와 복장물의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도 8, 9).

- ① 보살좌상 : 전체높이 67cm, 좌폭 44cm
복장물 : 보살좌상에서 나옴
복장기 1장 (62×27.5cm)
銅製 후령통 1기 (10.3×3.8cm)



도 9. 불석제 보살좌상 복장 후령통, 10.3×3.8cm

④ 腹藏記⁹⁾

順治十六年己亥十月日千如來與十六羅漢造成
 奉安于大法住寺(以)此功德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妣殿下壽萬歲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 法輪轉

佛像大施主李氏禮仁
 大施主鄭義信
 大施主崔揆山
 大施主金騰係
 大施主根春
 大施主比丘宗彥
 大施主張德起

9) 필자 釋文.

大施主崔福
大施主姜大仁
大施主命石
大施主朴連鶴

證明琢瓊比丘 持殿能俊比丘
山中諸德秩
諶機比丘
敬演比丘
懷默比丘
懷仁比丘
信玄比丘
法藏比丘
英俊比丘

畫士秩
惠熙比丘
尙敏比丘
敬林比丘
印云比丘
處祥比丘
摩日比丘
信明比丘
惟洽比丘
善圭比丘
宝珠比丘
法林比丘

緣化秩

別座溥倫

戒悟

機一

忠信

雪濤

太敬

大化士敬岑

心珠

姜天明

이제 각 상의 양식 특징과 복장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복장기의 내용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상은 보살좌상인데, 順治 16년(1659)에 千如來와 十六羅漢像을 조성하여 법주사에 봉안한다고 하는 앞부분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이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상에 그러한 복장이 들어있을 수는 없고, 아마도 나한상 내지는 천여래를 모신 전각의 주존 삼존불의 양협시상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보살좌상은 머리 부분이 크고 몸 부분이 작아서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상이지만, 천의나 군의의 세부 표현이 법주사 원통보전 보살상과 흡사하여 주목된다(도 5).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이 붙어서 조각되어 벗겨지지 않는다. 보관의 전체 외형은 기본적으로 원통보전 보살상의 보관과 같지만 세부장식은 조금 차이를 보여서 화문, 여의두문, 구름문 등으로 꾸며져 있다. 새나 화염보주, 그리고 화불 등은 보이지 않는데, 따라서 관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石像인 때문인지 옆으로 날리는 관띠를 표현하지 않았다. 밑으로 머리카락이 둥글게 내리워져 있고 보발은 양 귀를 걸쳐서 어깨에 둥근 고리를 만들고 두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얼굴은 약간 옆으로 넓적하여 童顏인데, 상호의 세부표현은 법주사 원통보전 관음상과 흡사하여 야무지고 단정하다.

또한 착의 형식도 원통보전 상과 여러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천의를 걸친 형식이다. 천의는 양어깨를 덮고 긴 띠자락이 몸 옆으로 둥글게 휘감아 돌았다가 팔목에 걸쳐지고 끝자락은 다시 앞으로 둥글게 말리며 날리고 있다(도 10).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석상이므로 옆으로 뻗치지 못하고 몸에 붙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운동감 있게 옷자락을 힘차게 날리게 표현하는 수법은 이미 원통보전 관음상에서 보았던 혜희의 특징이다. 또한 소형의 석상이다 보니 화패장식은 하지 않고 있다.



도 10. 불석제 보살좌상의 측면

또한 배부분에는 주름잡힌 승각기의 상단과 되접힌 치마 윗단이 삼각형으로 늘어져 있는데, 복감이 표현되지 않은 점을 빼고 이 부분도 흡사하다. 手印은 양손을 똑같이 양 무릎 위에 얹어 셋째와 넷째 손가락만 구부린 특이한 모습이다. 치마에는 양다리를 묶은 갑대가 표현되어 있고, 치마 끝단이 힘차게 무릎 양쪽으로 뻗치는 표현 또한 같다. 이처럼 이 보살좌상은 腹藏記에 적혀 있는 首彫刻匠인 혜희의 조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복장기가 전혀 잘못 납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형상들 역시 불석상이나 복장공은 없다. 소형의 여래좌상은 머리가 나발이고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다(도 6). 머리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있으나 상호가 단정하고 두 손을 옷 속에 넣어 공수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은 상이나 상호가 전형적인 혜희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편삼의 소매 끝자락을 마치 보살상의 천의 자락처럼 무릎을 힘차게 휘감아 돌게 표현한 특징에서 보살좌상에서와 같은 동적인 양식을 보인다(도 11).

소형의 승형상은 여래상 보다 조금 작은 상으로 역시 옷 속에 두 손을 넣어 무릎 앞에 모으고 있는데 얼굴의 표정이나 옷자락 조각에서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도 7). 앞의 소형 여래상의 바닥에는 아무런 글자가 적혀 있지 않으나, 이 상의 경우는 바닥에 梵字 3글자와 二十七 이라는 목서가 적혀 있다(도 12). 이 상은 머리가 승형이므로 자칫 나한상으로 볼 수 있으나, 옷이 나한 복장이 아니고, 또한 바닥에 27이란 숫자가 복장기에 16나한을 조성했다고 하는 점과 맞지 않으므로 역시 천불상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도 11. 소형 여래상의 옷자락 표현



도 12. 승형상 바닥의 범자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3상들은 복장기에 적힌대로 千如來像와 十羅漢像을 모신 전각에 봉안되었던 상들로 추정된다. 보살좌상은 규모가 작은 3존상의 협시보살상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2상은 천불상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추정된다. 현재 범주사에서 이 불석상들과 연관을 보이는 상들이 봉안되어 있는 곳으로는 팔상전과 능인전이 있다. 그러

나 현재 팔상전 내부 4면 불단에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소형 여래상과 승형의 상들이 봉안되어 있다(도 13). 그리고 능인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하는 소형의 三佛像과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관련성은 추정해 볼 수 있다(도 14).



도 13. 범주사 팔상전 내부 서면 불단 모습



도 14. 범주사 능인전 석조나한상, 높이 54.6cm

그런데 팔상전과 능인전의 상들은 이제까지 정식으로 조사된

바 없는데, 옛 상이 후대에 만든 상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한다면 상호 관련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주사에서는 이 팔상전의 소형 상들이 원래는 용화보전에서 미래천불로 봉안되어 있던 것인데, 조선 말기 용화보전이 소실되면서 천불 중 오백불은 파손되고 오백불만 보존되어 팔상전 안에 봉안되었다고 전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수년전 관음전과 삼성각 뒤쪽을 정리할 때 많은 破佛이 나와 다시 묻어 두었다고 한다. 이로 보면 현재 혜원정사에서 전하는 불상들은 소형이고 숫자도 3구에 불과하지만, 바로 범주사의 중심법당인 용화보전에 봉안되었던 천불상 중의 일부 상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는 범주사측에서는 大佛事였고, 이를 4년전에 원통보전의 관음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혜회에게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형상들의 재질이 당시로는 귀한 불석이고, 또한 소형상들의 조성기로는 발원인이나 화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혜원정사 관음상의 발원문을 범주사 원통보전 보살좌상의 발원문이나 그 밖의 혜회작 불상의 발원문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첨부 참조). 먼저 혜회는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상의 조성 이후 4년 뒤에 다시 범주사 용화전의 천불상과 십육나한상의 대규모 불사를 맡아서 조상활동을 한 것이다. 이 때의 불사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 특히 혜원정사 상의 경우 뒤이어 ‘國泰民安 法輪轉’이라는 글귀를 더 붙인 점은 이 불사가 작은 불사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불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범주사에서 곧 이어서 이루어진 불사인 때문인지 대시주자 명단 중에 崔福, 張德(興)起, 朴連鶴 3인이 겹쳐지고 있다.¹¹⁾ 그리고 혜원정사 상에서 화사인 惠熙, 尙敏은 원통보전 상에서도 화사였

10) 충청북도, 『寺誌』, 1982. P. 209.

11) 혜원정사 복장기에는 분명히 ‘德’으로 읽히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興’으로 읽고 있다. 원통보전 관음상의 발원문을 직접 보지 못해서 분명히 말하기 어려우나 같은 인물이든 아니면 같은 집안의 형제로 생각된다.

으며, 또한 혜원정사 상에서 화사인 處祥, 摩日, 信明, 惟洽 등은 원통보전 상에서는 山中老德秩에 이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혜원정사 상의 화사 중에 處祥은 유일하게 후에 조성된 전주 일출암 상과 부산 금정사 상에서 畫師로 나오며, 仁云은 寺中秩 山人으로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혜원정사 상의 別座인 溥倫은 원통보전 상의 別座 得倫과 판독의 차이이지 같은 인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혜원정사 상의 大化士인 敬岑은 원통보전 상에서는 化士로 나온다.

이처럼 혜원정사 상의 조성에 참여한 인물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같은 사찰에서 곧 이어서 이루어진 불사이므로 특히 원통보전 관음상의 조성때 참여한 인물이 많이 겹쳐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혜원정사 관음상이 작은 상이기는 하나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원통보전 관음상과 많이 유사한 점은 바로 그와같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惠熙가 慧熙와 동일인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혜원정사 상에서 惠熙와 함께 나오는 處祥이 완주 용문사상(전주 일출암 상과 부산 금정사 상)에서 慧熙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둘은 같은 인물임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677년에 조성되는 완주 용문사 상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인지 혜원정사상과 겹쳐지는 인물은 處祥, 仁云 외에는 없다.

2) 진천 영수사 관음전 목조보살좌상

영수사는 진천 두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사찰로 順治 10년(1653)에 그려진 보물 1551호인 영산회상괘불화가 전하는 절로 유명하다. 현재 경내에는 조선 후기에 지은 삼성각(구 관음보전)과 근래에 신축한 대웅전과 관음보전이 있으며, 이 신축 관음전에 높이 90cm, 무릎 폭 57cm의 목조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도 15). 노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목조보살상은 같은 진천읍 상계리에 있었던 백련암이 폐사되면서 괘불과 함께 옮겨온 것이어서 원래 영수사에서 봉안했던 상은 아니다.¹²⁾ 그리고 30여 년 전에 개금을 했다고 하는데, 복장에 관해서는

12) 『常山誌』(1932판), 古蹟條에는 괘불이 백련암의 폐사로 인해 영수사로

언급되는 바가 없어서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각승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보살상의 아무진 상호 표현이나 천의와 착의 형식, 그리고 운동감 있는 힘찬 옷주름의 조각양식이 범주사 원통보전 관음상이나 앞에서 살펴본 혜원정사의 보살상과 꼭 같으므로, 이 상도 혜희가 조각한 불상으로 추정되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¹³⁾



도 15. 진천 영수사 관음전 목조보살좌상, 1660년대 추정, 높이 90cm

그런데 백련암은 조선 말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짧게 존속했던 사찰이고, 그 터는 원래 길상사지로 알려지고 있다. 길상사에 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6, 鎭川縣 山川條나 『與地圖書』 忠淸道 鎭川縣 寺刹條 등에 보이고, 또한 1970년대 후반에 길상사지의 금당터로 추정되는 인근에서 다량의 소형 소조불상편과 함께 ‘嘉靖’銘(1522~1566) 瓦片이 발견되었다 한다.¹⁴⁾ 이 다량의 소조불편으로 인해 길상사에는 천불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이 소조불편의 일부

옮겨진 내력이 적혀 있다.

13) 송은석, 영수사 상을 혜희작으로 언급하고 있다. P. 226.

14) 『寺誌』, pp. 411-413.

인 나한상편이 현재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영수사의 관음상은 원래 길상사에서 봉안했던 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혜희작으로 생각되는 관음보살상이 모셔졌던 길상사에서 범주사에서와 같이 천불상을 봉안했었던 점은 상호 연관성을 보여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추후 길상사지에 대한 조사 및 소조상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수사 보살상의 형식과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가부좌의 자세로 좌우가 바뀐 하품중생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써 삼존상에서 좌협시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커다란 보관은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속판으로 만든 화문과 구름문 등을 부착하여 장식하였는데, 일부 문양이 명료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후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띠도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얼굴은 방형이면서 작은편이고 뺨이 팽만되어 童顔으로 보인다. 상호는 가늘게 뜬 눈, 뽀족한 코, 꼭 다문 입에서 야무지고 단정한 혜희작 보살상의 상호 표현과 같다. 그리고 어깨에 늘어지고 있는 보발을 2가닥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도 원통보전이나 혜원정사 관음상 모두 공통이다. 목은 짧으나 상체가 길쭉한 편이며 결가부좌한 다리의 폭이 넓고 높이도 적당하여 佛身은 안정된 비례를 보인다.

특히 착의 형식면에서도 혜희작 보살상들과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양 어깨에 천의를 걸치고 있고 윗팔뚝에 천의자락 사이로 완천의 표현이 보인다. 특히 긴 천의자락이 몸 옆으로 둥글게 힘차게 돌았다가 팔뚝에 걸쳐져서 늘어지는 표현이 같다(도 16). 그리고 배부분에 수평으로 승각기의 윗단이 주름져 있고, 그 아래로 복감은 없지만 균의의 윗단이 삼각형으로 늘어진 것, 그리고 양 무릎 아래 갑대를 표현한 것, 그리고 힘찬 치맛자락의 우주름 표현 등 모든 면에서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도 16. 진천 영수사 관음전 목조보살좌상의 측면

그리고 이 상에서도 火佩의 긴 띠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즉 법주사 원통보전 보살상과 비교해 옆으로 날리고 있는 관띠와 화폐장식, 그리고 복갑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규모가 작은 상에서는 너무 번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체적으로 혜원정사 보살상과 보다 친연성을 보이므로, 조성시기는 법주사 원통보전 상 보다는 이후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4. 충북지역 惠熙作 불상의 양식특징과 조각사상 의의

이상의 고찰로 보면, 충북지역의 혜희작 불상은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위시하여 혜원정사 불석상 3구, 진천 영수사 목조 관음보살좌상 등 모두 5구이다. 이것은 현재 혜희작 불상이 많지 않은

15) 송은석, 앞 논문, P. 226. 그는 영수사 관음상을 원통보전 상 보다 앞에 편년하고 있다.

가운데 결코 작은 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충북지역의 상 중에는 보살상이 많은데, 특히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범주사 원통보전 관음상에서 확립된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혜희 불상양식의 특징은 여래상 보다는 보살상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려한 보관과 야무진 상호표현, 그리고 착의 형식이 여래상 服制가 아니고 수월관음 도상과 연관을 보이는 天衣를 착용하는 점, 배부분에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의 윗단을 꽃잎처럼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점, 그리고 군의 윗단의 뒤집어진 모양을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친의자락이 몸 옆에서 둥글게 뒤로 휘감아지는 운동감있는 형태와 다리 앞에서 힘차게 좌우로 뻗치는 옷자락 표현, 그리고 정강이에 모두 갑대를 표현하여 장식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원통보전 관음상의 중요한 특징인 관대나 가슴에 화패를 달아 끈자락이 수평으로 날리는 표현은 이후의 상들이 소형의 상들이어서인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충남지역의 보살상 중에도 혜희작으로 추정되는 예들이 있는데, 갑사 대성암의 목조보살좌상이나 부여 대조사의 목조보살좌상 등으로(도 17),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관띠가 2줄 옆으로 휘날리고 있는 것이다.¹⁶⁾ 이 상들도 물론 관띠 외에도 얼굴의 상호 표현이 흡사한 점이 있으나, 충북지역 보살상과의 큰 차이점은 여래형 착의형식과 옷주름 선에 운동감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충남지역의 보살상들은 모두 여래상의 偏衫을 착용한 복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승각기 윗단에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군의 윗단의 뒤집어진 표현이나 무릎 밑의 갑대 표현도 볼 수 없다. 또한 옷주름선도 힘차게 휘감아 도는 듯한 운동감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앞으로 이 상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같은 혜희작 보살상이라면 지역적 차이 내지는 관음상과 대세지상과 같은 도상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조각승의 불상이라면 그 영향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16) 송은석, 앞 논문. pp. 221-227.



도 17. 부여 대조사의 목조보살좌상, 17세기 추정, 높이 82.5cm

또한 혜원정사의 소형 불석상들은 복장기로 보건대 범주사 용화전이나 능인전 같은 전각에 봉안했던 불상 중의 일부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 상들의 크기는 작지만 숫자가 많으므로 역시 공이 많이 들어가는 大佛事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혜회는 원통보전 보살상을 조성한 4년 뒤에 맡아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을 보면 작은 상이지만 역시 얼굴 표정이나 옷자락에서 혜회의 생동감있는 양식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로 보면 혜회는 목조각 뿐 아니라 불석상 제작에도 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혜회의 이와같은 범주사에서의 불사는 이후 이웃한 진천 길상사의 목조삼존상과 소조천불상의 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혜회의 충북지역에서의 활동 및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혜회의 조상활동에서 빈 공간이었던 범주사 원통보전 보살상의 조성시기인 1655년 이후부터 완주 용문사 삼존상의 조성시기인 1677년 사이의 공백을 메꾸어 주는 것이고, 이로 보면 혜회는 기량이 가장 높고 활발

히 조상활동을 할 당시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된다. 이 점은 조각승 혜희 및 그의 불상 연구에서 중요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주사의 천불상 및 나한상은 불석으로 조성되어서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오다가 조선 말기에 대원군에 의해 용화전 불상이 파손될 때 함께 인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일부는 팔상전으로 옮겨진 듯 보인다. 그리고 또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법주사에서 일부 전하던 상들도 스님들에 의해 주변 사찰로 옮겨지면서 대다수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처음으로 확인된 예가 바로 혜원정사의 상들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주사 팔상전이나 능인전의 소불상이나 삼성각 뒤편에 문혔다고 하는 파불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북지역 사찰에서 전하는 소불상 중에 청주 용화사 대웅전에 있는 석조소불상(도 18)이나 진천 영수사 삼성각의 석조소불상 등은 혜원정사의 소불상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⁷⁾



도 18. 청주 용화사 대웅전 석조소불상, 높이 32.5cm

아울러 혜원정사 보살상의 복장기 조사를 통해서 惠熙와 慧熙가 같

17)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편, 2006, P. 46, 281.

은 인물임이 더욱 분명해진 점도 조각사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발견된 혜희 관련 복장기를 종합해 검토해 보면,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함께 한 조각승과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함께 한 승녀가 서로 다른 것이 드러난다. 이로 보면 한 유파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작업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사가 있는 지역에서 그때 필요한 조각장들을 모아서 작업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점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불상연구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표 1 참조)

<표 1 혜희작 불상과 참여 조각승>

	불상명칭	조성시기	조각승
1	승림사 성불암 목조여래좌상	1640년	法靈, 哲學, 覺玄, 慧熙, 祖能, 惠元
2	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좌상	1641년	淸憲, 法令, 慧澄, 會海, 法玄, 雲隴, 天澤, 天允, 靈竺, 賢允, 贊日, 法密, 惠熙, 信雄, 見牛, 靈隱, 惠遠
3	금산사 대장전 불상	1650년	通政大夫 惠熙, 金文, 性悅, 寶融, 懷日
4	감사 보장각 목조여래좌상	1650년경	惠熙, 天允, 尙敏, 善雲
5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惠熙, 智修, 天允, 尙敏, 海修, 天澤, 祐玄, 信明, 處仁
6	1 혜원정사 불석제 관음좌상	1659년	惠熙, 尙敏, 敬林, 印云, 處祥, 摩日, 信明, 惟洽, 善圭, 宝珠, 法林
	2 혜원정사 불석제 소형 여래좌상 및 나한상	1659년 추정	
7	1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	1677년	慧熙, 處祥, 信一, 灵坦, 普融, 懷一, 道文, 爐洽 崔秀千
	2 부산 금정사 목조여래좌상	1677년	慧熙, 處祥, 信日, 灵坦, 普融, 懷日, 道文, 爐洽 崔秀千

5. 맺음말

근래 조선시대 불상 연구는 腹藏記가 있는 불상이 다수 발견되면서 불상의 양식 고찰 뿐 아니라 불상의 조성시기 및 조성배경, 그리고 조각승 등 중요한 내용이 밝혀지므로, 보다 풍부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충주 혜원정사의 불석 소불상들은 규모가 매우 작은 상이므로 복장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상들인데, 복장기가 있으므로 인해 법주사에서 1659년에 이루어졌던 千佛像 및 十六羅漢像의 조성이라고 하는 大佛事를 복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진천 영수사의 목조관음상은 복장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불사를 배경으로 이어서 惠熙가 충북지역에서 조성한 불상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충북지역에서 새로이 조사된 惠熙作 불상들의 연구를 통해서, 17세기 중반경의 대표적 조각승의 하나인 惠熙의 활동 상황과 불상양식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규명할 수 있었던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혜희작 불상들이 주로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조성된 상들이 많이 전하고 있어서, 법주사 원통보전의 관음보살상이 그의 대표작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에서의 활동상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통보전 관음상은 물론이고 혜원정사의 불석상과 영수사 목조관음상의 예들을 통해서 볼 때, 惠熙는 1655년 이후 기량이 가장 뛰어나고 활발한 조상 활동을 한 시기를 법주사를 중심으로 충북지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첨 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기(順治 12년, 1655년)¹⁸⁾**

順治十二年乙未十月日觀音造成奉安于俗離山大法
住寺觀音殿以此造成功德奉爲
主上殿下壽萬歲
大王大妃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萬年
世子邸下壽千秋
造成都大施主崔福

大施主朴連鶴

尙均 比丘

鄭金同 兩主

崔介金

黃德州

沈馬堂

張興起

勝雲比丘

心修 比丘

金起福

證明可輝持殿覺連線化秩

畫師秩

惠熙 比丘

智修 比丘

18) 정은우, 앞 논문 pp. 155-156 참조.

天允 比丘
尙敏 比丘
海修 比丘
天澤 比丘
祐玄 比丘
山中老德秩
釋蘭 比丘
性悅 比丘
處祥 比丘
摩日 比丘
勝學 比丘
能學 比丘
省贊 比丘
明覺 比丘
金文 比丘
裕洽 比丘
淨允 比丘
信明 比丘
處仁 比丘
別座得倫
化土敬岑
森彦

[논문접수: 2013. 5. 10, 심사시작: 2013. 5. 15, 심사완료: 2013. 5. 27.]

주제어 : 惠熙, 慧熙, 충북지역, 범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충주 해원정사 불석제 보살좌상 및 소형상, 17세기 彫刻僧, 진천
영수사 목조보살좌상

【참고문헌】

-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권(사회평론, 2006. 3)
- 문명대, 「조각승 혜희(慧熙)의 작품세계와 부산 금정사 봉안 용문사(龍門寺) 목 아미타불상의 복원적(三世佛像) 연구」, 『강좌미술사』34(한국미술사 연구소, 2010)
- 최선일,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 -불교조소-』, 양사재, 2007.
- _____, 『17세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한국연구원, 2009.
- _____,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2.

<ABSTRACT>

A study of Hye-hee(惠熙)'s Buddha images in Chungbuk area

Kim, Choon-sil

Hye-hee was a monk sculptor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d is known for having engraved the seated wooden Avalokitesvara Bodhisattiva statue at Wontongbojeon Hall, Beopjusa Temple, Boeun (1655), the seated wooden Buddha image at Bojangjeon Hall, Gapsa Temple, the seated wooden image of Bhêchadjaguru at Ilchuram, Jeonju, the seated wooden image of Amitabha, Geumjeongsa Temple, Busan (1677), etc. Considering one of his major works, the seated wooden Avalokitesvara Bodhisattiva statue at Beopjusa Temple, the style of sculpture is sturdy and masculine, and distinctive in that it expressed the lower ends of clothes in a dynamic flurry. However, it is needed to find more data for research advance because little is known about Hye-hee's Buddha images except the above statues.

On the other hand, it was possible to advance in studying his works because some Buddha images newly found were known for those of Hye-hee by designated investigations on the Buddha images in Chungbuk area from Joseon dynasty recently. Especially, the zeolite seated statues of Bodhisattva and little Buddha at Hyewonjeongsa Temple, Chungju, turned out to have been originally formed at Beopjusa Temple in the sixteenth year of Sunchi(順治) period (1659) by Bokjangki Document and this shows Hye-hee had kept being associated with Beopjusa Temple and making Buddha

images. Moreover, a seated Bodhisattva statue regarded as one of Hye-hee's has been handed down at Yeongsusa Temple, Jincheon, although Bokjangki Document was not investigated for the statue, and it shows he left behind numerous works in Chungbuk area.

Hye-hee has been known to work mainly in Chungnam or Cheonbuk area through studies so far because any Buddha images of Hye-hee's but the image of bodhisattva at Wontongbojeon Hall, Beopjusa Temple had not been found in Chungbuk area. However, in that his major work was the seated wooden statue of Avalokitesvara at Wontongbojeon Hall, Beopjusa Temple and then at a subsequent time the statues made in Chungbuk area were found, he is considered to have made much artwork in Chungbuk area focused on Beopjusa Temple at a time when he was masterfully skilled. In addition, the Buddha images found in Chungbuk area had strong influences from the wooden statue of Avalokitesvara at Wontongbojeon Hall, Beopjusa Temple in terms of the forms of clothes or aesthetic aspects and from this, it seems that there could have existed regionally popular styles.

Keywords : Hye-hee, Chungbuk area. The seated wooden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at Wontongbojeon Hall, Beopjusa Temple, The zeolite seated statues of Bodhisattva and little Buddha at Hyewonjeongsa Temple, Chungju, The monk sculptor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seated Bodhisattva statue at Yeongsusa Temple, Jincheon